

동네방네 아지트 탐방 3

인천의 문화 아지트를
찾아 떠나는 여행

동네방네 아지트 탐방 3

인천의 문화 아지트를
찾아 떠나는 여행

들어가는 말

2019년 동네방네 아지트 지원을 통해, 7개의 군·구에서 14개의 새로운 아지트를 발굴했습니다. 카페, 작은 도서관, 연습실, 사진관, 화실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공간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며 인천 곳곳에는 정말 재밌고, 가볼 만한 공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장소.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정겨운 장소.

내가 아는 것은 알려주고,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나눔의 장소.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네 방방곡곡을 탐방하고, 아지트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윤지원

차례

강화군·중구·동구 동네방네아지트

- 일상과 생활의 열린 공간 온(ON)수리 카페 _ 10
- 은근하게 오래도록 뜨거운 Acting 연습실 ‘Y’ -극단 열정- _ 16
- 꿈이 가득한 작은 서점 화수동 ‘책방 모도’ _ 22
- 작은 도서관 안에서 키워가는 큰 꿈 산책 작은 도서관 _ 28
-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 커뮤니티주점 ‘개코 막걸리’ _ 34

부평구·남동구 동네방네아지트

- 사랑하는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빛파루화실 _ 42
- 지금, 시대의 예술을 목격하자 현대문화공간 ‘SAM’ _ 48
- 이곳의 나무에는 우리의 꿈이 주렁주렁! 꿈나무도서관 _ 54
- 소통과 나눔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곳 꿈다락도서관 _ 60
- ‘꿈지락꿈지락’ 바느질모임 공세알도서관 _ 66

동네방네 아지트 탐방 3

인천의 문화 아지트를
찾아 떠나는 여행

미추홀구·연수구 동네방네아지트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라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_ 74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스페이스더하기** _ 80

흑백사진 속에 동네 역사를 담는다 **카메라사진관** _ 86

호모 파베르의 후예들이 모였다 **(주)로보메카 메이커스페이스** _ 92

2017-2019 동네방네 아지트 한눈에 보기 _98

2017-2019 동네방네 아지트 목록 _99



아지트마다 연결된 QR코드를 통해
짧은 소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강화군, 중구, 동구 동네방네 아지트



1 | 일상과 생활의 열린 공간 온(ON)수리 카페





강화도 길상면 온수리는 역사를 품고 살아온 오래된 동네다. 강화도의 유서 깊은 절, 전등사를 방문하려면 예전부터 우리는 이 마을에서부터 걸어 올라갔다. 전등사뿐만 아니다. 단군의 아들이 쌓았다는 삼량성이 있고, 대한제국 시대에 건립한 고풍스러운 성공회 성당이 있다.

오늘날 온수리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초지대교가 놓이면서 강화도의 84번 간선도로가 온수리를 지나고, 여기 온수리에서 북으로는 강화읍, 서로는 화도면, 남으로는 동검도, 동으로는 초지진으로 길이 갈라진다. 사통팔달의 요충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온수사거리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다. 대부분 관광 온 외지인들이다. 이 북적이는 거리에 마치 여행자들의 쉼터 같은 카페가 하나 오롯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로 ‘온(ON)수리 카페’다.

‘온수리 카페’는 온통 수직의 방부목으로 외벽을 감싸고 있다. 숲의 느낌을 담으려 했던 걸까. 줄지어 선 나무들로 인해 카페는 마치 침엽수림 안에 묻힌 오두막 같은 느낌을 준다. 일상의 복잡한 거리에서 카페는 이방인처럼 자기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카페의 주인은 콘크리트를 거부하는 나무 애호가였다. 그래서 건물의 외벽을 온통 나무로 감싸고 싶었던 것일까.

처음 카페 안에 들어섰을 때는 여느 카페나 다를 바 없는 공간으로 보였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차 마시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카페는 내부에 또 다른 공간을 품고 있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나무 냄새가 진하게 박힌, 나무를 껴안고 텅굴고 살아가는, 나무와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벽에는 빙 둘러 목공예에 필요한 수많은 도구가 준비하게 걸려있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짐작도 안 되는 도구들도 많았다. 카페 주인 장일식 씨는 3년 전에 이 공간을 마련했는데,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카페는 덤으로 하는 거고, 목공예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과 나무를 소재로 가구도 만들어 보고, 공예품도 창작해 보고 싶었던다. 나무의 숨결을 사람들과 함께 느끼며, 현대 도시 문명에서 벗어나고 싶었던다. 그에게 나무는 자연, 그 자체였다.





장일식 씨는 인터뷰하다 말고 자리를 뒀다. 인터뷰 당일까지 마쳐야 할 목공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분은 나무와 결혼한 사람인가 싶었다. 그리고 보니 그는 인터뷰하는 중에도 몹시 수줍음을 뒀다. 아마도 나무와 대화하는 게 더 편한 사람으로 보였다. 아무튼 그래서 자리를 뜬 장일식 씨 대신 카페를 지키는 한 여자와 대화를 해야 했다. 여자는 “짱가님(장일식 씨의 별명인 듯)은 원래 그런 분”이라고 하며 웃었다. 그래, 무언가 사랑하면 그렇게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문득 카페 유리창에 쓰인 가게 이름에 눈이 갔다. ‘수리 카페’라고 쓰여 있었다. 어라? 카페 이름이 수리 카페? ‘온수리 카페’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온’ 자는 따로 ‘ON’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온(ON)수리 카페’였던 것이다. 이렇게 ‘ON’을 강조하는 것은 ‘열린(OPEN) 공간’의 의미를 담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온수리 카페’는 그 아말로 열린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었다.

‘온수리 카페’는 일곱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업사이클링 식물 화분 만들기, 매듭공예-마크라메 플랜트행거 만들기,

일상 네 컷 만화 그리기, 건강한 먹거리 관찰기 & 우리밀빵 샌드위치 만들기, 나무 스탠드 조명 만들기, 나무 스톨 만들기, 우드카빙 버터나이프 만들기 & 네트워킹파티 등의 활동이었다.

그런데 강사진을 보니 재미있다. 특별히 전문 강사를 초빙한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네 주민들이 강사로 나섰다고 한다. 동네 빵집 주인이나, 마을의 가정주부, 아마추어 공예가 그리고 같은 동네 주민인 카페 주인 ‘짱가’ 씨까지 모두 동네 사람들이다.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이끼리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만들어 보는 옛날 우리 마을 두레 같은 활동이었다. 그렇다면 ‘온수리 카페’는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혹은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낸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는 지역주민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다가다 카페에 들른 여행자들이나 소문을 듣고 달려온 타지 사람들도 꽤 있었다



고 한다. 수강 신청이 폭주해 부득이 횡수에 제한을 걸거나, 조기에 신청자를 마감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안타까웠다고 한다.

공간의 이곳저곳에는 그동안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카페 입구에는 아담한 반려식물 화분 몇 개가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었고, 벽에는 매듭으로 엮은 플랜트행거 하나가 청초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소품들은 소박하지만, 실제 손으로 나무를 깎고 다듬어 만든 자취가 뚜렷했다. 사각형의 조명 스탠드, 두꺼비 형상의 나무 조각 그리고 오밀조밀한 주걱들, 버터나이프들이 만든 이의 정성을 담고 귀엽게 한쪽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강화도 온수리의 재발견’

‘온수리 카페’가 내건 슬로건이다. 일상과 생활 속에서 문화를 충전하는 아지트를 꿈꾸며 온수리를 지키겠다는 각오가 엿보인다. 단순히 왔다가 차 한 잔 마시고 훌쩍 떠나는 뜨내기 공간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활문화의 공간인 것이다.

이곳에 와서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경험은 참 특별한 것 같다. 특히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창작이라면 이보다 더 소중한 체험은 없을 것이다. 강화도 길상면 온수리에 갈 기회가 있다면, 생활기술 목공방을 지향하며 생활 속에서 다양한 기술을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인 ‘온(ON)수리 카페’에 한 번쯤 들러보기를 권한다.

동네방네
아지트

온(ON)수리 카페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길 17

연락처 032-937-7272

#동네방네아지트 #강화도카페 #온(ON)수리카페 #목공예



2 | 은근하게 오래도록 뜨거운 Acting 연습실 'Y' -극단 열정-





해가 짧아져 금세 어둑해진 어느 주말 저녁, 극단 ‘열정’의 연습실을 찾았다. 연습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따라 들어가 보니 단전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공간을 울린다.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은 매달리고 한 사람은 뿌리치는 광경. 그 둘을 말리는 또 한 사람. 찌렁찌렁 울리는 소리에 압도되어 조용히 한 자리에 앉아 쪽 지켜보았다. 극단 ‘열정’의 단원들은 곧 있을 공연 연습이 한창이었다.

극단 ‘열정’은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알고 보면 연륜과 내공이 있는 극단이다. 극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염영호 씨는 17살에 처음 연극을 접하고 매료된 이후로 지금까지 연출에서 연기까지 연

극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연극계 사람들과 지금까지 함께 작업하고 있다. 염 대표는 단순히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오랫동안 연극을 알고 배우려고 노력했다. 연극을 통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도 하고 극단 연습실도 마련한 것이 지금의 극단 ‘열정’의 모습이다.

연습실을 찾은 외부인이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정 연기에 몰입하는 것을 보며 ‘배우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다는 말을 했더니 곧바로 단원들의 자랑이 이어졌다. 배우를 직업으로 하는 단원도 있고, 심리치료사나 회사원 등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연기를 계속하고 있는 단원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극단 ‘열정’에서는 배우들을 정(正)단원, 준(準)단원 체제로 한정시키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연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작은 극단으로써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방식의 단원 체제는 극단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무대와 조명, 음향들을 담당하는 스텝들과 연출을 담당하는 단원들까지 구성원들이 조금씩 더해지고 빠지기도 하지만 현재는 연출, 스텝, 배우들을 합해 10여 명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극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두 번 정기공연과 다른 극단과의 연합이나 외부 지원을 통해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 비정기 공연을 한다. 이번 정기 공연은 연출부의 스텝이 심리치료기법을 도입해서 극본을 쓴 창작극 <신비한 상점, 꿈>을 준비 중이다. 정기 공연에





서는 기존에 발표된 작품을 선정하여 공연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창작극의 비중을 늘려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공연이 잡히면 주중에는 모일 수 없기에 주말에 휴일을 반납하고 3~4개월 전부터 연습을 한다. 이번엔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 2주에 걸쳐 주말마다 합숙을 하면서 준비중이라고 한다.

각자의 생활이 있으면서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연극에 대한 열정 때문이다. 연극의 매력을 더 많이 알리고 싶어 동네방네아지트 사





업도 지원하게 되었다. 극단 ‘열정’의 동네방네아지트 프로그램인 〈나도 배우다〉는 시민 배우 4명과 전문 배우를 1:1로 연결하여 4개의 에피소드에 대한 연기 강의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처음엔 시민 배우들이 어색해하기도 했지만, 전문 연기자와 함께 연습하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맡은 배역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각자 연습한 작품을 가지고 작은 공연을 했는데, 참가자들이 3시간으로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7~8시간씩 연습을 하고, 주중에도 따로 모여서 준비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다.

이번 기획은 기획자와 참가자 모두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꼭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고 한다. 참가자들의 피드백 중 하나를 소개하

자면, 배우지망생이었지만 무대 공포증으로 연기를 하지 못했던 참가자가 있었다. 드라마틱하게 무대 공포증을 완전히 고친 것은 아니었고, 공연하면서 정신없이 떨긴 했지만 무대에 서서 자신의 역할을 마친 것만으로도 실패감과 후회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고 사람들과 함께 연기를 다듬어가는 과정 또한 즐거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염영호 대표는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가능하다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민 연기자를 발굴할 계획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연극 활동의 저변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네방네
아지트**

Acting 연습실 'Y' -극단 열정-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60-1 3층

연락처 010-7595-6357

SNS http://pf.kakao.com/_xdCxgwT

#동네방네아지트 #연극 #공연 #극단열정 #연기수업

#심리치료



3 | 꿈이 가득한 작은 서점 화수동 '책방 모도'



아주 오래 된 영화 중에 케빈 코스트너가 나온 <꿈의 구장>이라는 작품이 있다. 평범한 농부였던 주인공이 어느 날 꿈속에서 옥수수 밭에 야구장을 만들라는 속삭임을 들은 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밭을 뒤엎어 손수 야구장을 만든다. 그리고 그 후 거짓말처럼 잃어버린 꿈을 찾아 야구장에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청소년이었던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른이 되면 저렇게 가슴이 설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다.

인천시 동구 화수동에 위치한 ‘책방 모도’(동구 화수로 47번길 14)는 딱 <꿈의 구장>이 떠오르는 곳이었다. 오래된 시간이 켜켜이 쌓여있어 가장 인천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화수동의 한적한 주택가 안쪽, 마치 시간이 고여 있는 듯한 그곳에 ‘책방 모도’가 문을 열고 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동네 분들도 많았어요. 유동 인구가 거의 없고 주민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 책 보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요”



아마 나였더라도 다시 생각해보라며 만류했을 것이다. 상업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이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한 20대의 두 사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했고 의기투합해 결국 책방 문을 열었다.

“정말 신기하게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분들도 책방을 찾아주세요. 한번은 외국인이 방문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책방을 알고 왔는지 저희도 궁금하더라고요.”

너무나 소박한 공간인데 이곳에 책이 한 권 두 권 늘어나면서 손님들 역시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책방은 어림도 없다고 했던 화수동 주민들도 점차 단골손님이 됐다.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손수 책을 주문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마실 오듯 들리는 엄마들





도 있고, 하룻길 교복을 입은 채 꾸뻑거리며 들어와 책을 살펴보고 가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동네 책방이 단순히 책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문화를 함께 나누는 곳으로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마침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아지트’ 지원 사업에 선정된 덕분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현재 ‘책방 모드’에서는 두 가지 재미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하나는 책의 제목도 장르도 모른 채 오직 책방 모드 대표의 추천에만 의지해 책을 받아보는 ‘비밀스러운 권유’와 모드 대표가 엄선해서 추천하는 책의 저자와 그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모여 북 토크를 나누는 ‘공개적인 권유’다. 이것 외에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심야 책방 ‘책, 맥,



밤’이 문을 열어 밤 11시까지 책을 읽으며 차와 맥주를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곳에 책방을 여는 건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윗놀이에서만 봐도 무조건 모가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고 도가 나왔다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만약 모가 아니라 도가 나온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잘 극복을 하면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혹시 책방이 망한다 해도 이 많은 책들을 읽은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자산이 될 테니까요.”

어느 새 개업 2주년을 앞둔 ‘책방 모도’는 다행스럽게도 ‘대박의 모’까지는 아니지만 ‘발전적인 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책방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는 건 아니지만 따뜻한 온기가 유지될

정도로는 꾸준히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두 사장의 패기 또한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였다.

살아가는 일도 윗놀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다시 말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엔 모가 나온들 도가 나온들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설령 뺄(back)도가 나온 한들 어떠랴. 그 또한 신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Go!”를 외출 수밖에.

동네방네
아지트

책방 모드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47번길 14

연락처 070-8877-1215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dobooks032>

#동네방네아지트 #책방모드 #화수동책방 #동구서점



4 | 작은 도서관 안에서 키워가는 큰 꿈 산책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산책’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50-1)을 방문한 건 금요일 저녁 7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흔히들 말하는 ‘불금’의 시간, 작은 도서관 ‘산책’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불타오르는 중이었다.

“지난 2년여의 세월 동안 공들여 쓴 글들을 선별해서 직접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산책’ 도서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심 씨는 이 모임을 간단히 설명했다.

동구 인천지방경찰청 인근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산책’은 2015년 2월에 문을 연 사립도서관이다. 1층에 자리한 카페를 지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시원하게 펼쳐진 공간에 무려 7천 여 권의 책들이 단정하게 꽂혀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도서관에는 전문 사서도 근무하고 있어서 책에 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책뿐만 아니라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드 게임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이름처럼 산책 나온 듯 가벼운 마음으로 들러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도서관의 문을 연지 올해로 4년째, 그 사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인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연은 독서토론회와 글쓰기모임으로 발전되었다.

“대부분 이 근처 동구에 사는 사람들이예요. 연령대도 30대에서 50대까지 폭넓고 직업도 회사원부터 공무원, 전업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독서토론회와 글쓰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장옥선 씨에게 ‘산책’은 일상생활에서 받는 소소한 스트레스가 저절로 치유되는 공간이라고 한다. 독서모임과 글쓰기모임이 이어진 지 어느새 2년, 조금은 정제된 모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행운처럼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아지트’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 덕분에 그동안 쌓인 작품들을 책으로 출간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한다.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도 아니고 처음엔 자기 속내를 털어놓는 글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모임이 거듭되면서 글을 통해 스스로 위로를 받게 됐고 또 서로를 격려하게 되면서 모임의 의미가 더 깊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 써 온 글들을 한 편 한 편 직접 선정하고 또 자기 손으로 책으로 만들면서 기대 이상의 성취감을 얻게 됐어요.”





북 아트 전문가를 초빙해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 낸 ‘산책’의 글쓰기 회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다시 작품을 엄선해 올 12월에는 정식으로 책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서 책이 출간되면 ‘산책’ 도서관에서 기념회와 전시회를 멋지게 열 예정이다.

올해로 4년째 순수하게 사비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미 관장은 ‘산책’ 같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전했다.

“문화라는 것이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만들고 일반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향유하는 것에서 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들어 이렇게 지역의 작은 문화공간이 생기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주체가 돼 문화가 생산되고 발전되는 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한 권이 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만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살피지 못했던 자존감도 회복시키는 힘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소박한 책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는 읽는 이에게 토닥토닥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산책 작은 도서관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50-1 지하 1층

연락처 032-766-6488

#동네방네아지트 #산책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동구도서관



5 |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 커뮤니티주점 '개코 막걸리'





헌책방 골목으로 유명한 배다리 마을에는 헌책방만큼이나 유명한 막걸리 집이 있다. 1987년에 문을 연 ‘개코 막걸리’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10-2)는 본래 ‘디즈니 분식’이라는 밥집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창영초등학교를 비롯해 영화학교, 선화학교, 동산고등학교까지 학교들이 몰려 있었던 이 동네에서 손맛이 좋기로 유명했던 밥집은 주문을 감당하기 힘들만큼 손님이 몰렸던 인기 식당이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한 차례의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런데 전화위복으로 맛있는 음식에 막걸리를 마시러 찾아오는 주머니 가벼운 문화예술인들

과 인근 주민들의 발길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주인 내외는 본격적으로 막걸리를 팔기 시작했고 ‘개코 막걸리’로 상호를 변경하게 됐다. 그 후 30여 년 가까이 배다리 마을에 있는 유일한 대포집이자 지역 문화를 오랫동안 품어 온 노포 중의 하나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개코 막걸리’가 지난 2018년 7월, 또 한번의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른바 커뮤니티주점 ‘개코 막걸리’로 새 간판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맛깔 나는 음식과 정겨운 입담으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신 70대 노부부를 대신해 새로운 주인이 등장한 것이다.

“어렸을 적 배다리 인근에서 자라 이 지역에 대한 애착함이 있어요. 한때는 극단 연습실이 이 근처에 있어서 여기 단골이었죠.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건 저에게도 아쉬운 일이라구요.”

노부부가 건강 때문에 ‘개코 막걸리’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극 연출가이자 커뮤니티 시어터 ‘우숨’의 대표인 김병균 씨가 가게를 인수했다.

“사실 가게를 인수할 때부터 장사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가게 문을 열었던 건 이 공간을 통해 이 지역에 새로

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개코 막걸리’라는 상호 앞에 ‘커뮤니티 주점’이라는 별칭을 달았던 것도 이곳이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찾아와 문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그런 바람을 바탕으로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김 대표는 독서 모임과 시민연극 활동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꾸려왔다. 그리고 이번 인천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아지트’ 사업의 후원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개코+인문학+파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천 출신의 양진채 소설가를 시작으로 인천시립박물관장인 유동현, 그리고 심정동이 개발되







면서 고향을 잃게 된 사연을 노래로 부르고 있는 ‘개코양상불’의 공연
까지 배다리 인근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예술인들이 초대돼 ‘개코 막걸
리’를 찾아준 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균 대표는 내년엔 더 새롭고 다양한 ‘개코 인문학파티’가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더불어서 적극적인 지역 문화의 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 ‘개코 막걸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역사는 고정되고 박제된 것이 아니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이 낡은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 것 같은 외양적인 변화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오랜 역사를 이어온 이곳 배다리에 젊은이들이 찾아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이 역사에 긴 생명력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의 중심에 ‘개코 막걸리’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레트로(복고풍) 감성이 큰 유행처럼 번지자 옛날 감성이 살아있는 인천의 오래된 동네를 찾는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배다리 같은 동네가 잠시 스쳐 가는 관광코스가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희망의 아지트로 주목받기를 함께 소망해 본다.



커뮤니티주점 개코막걸리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참영동 10-2

#동네방네아지트 #커뮤니티주점개코막걸리 #개코막걸리

#인문학프로그램



부평구, 남동구 동네방네 아지트



6 | 사랑하는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빛짜루화실





부평구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조용히 자리 잡은 한 화실. 올라가 보니 수업 준비가 한창이었다. 미리 온 분들은 함께 청소기도 밀고 자리도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이라 간단히 인사만 나누었다. 다들 분주한 가운데 나 혼자만 덩그러니 서 있기가 무척 어색했는데 다행히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어 주었다. 준비하는 동안 건네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화실을 둘러보았다. 커다란 화실 여기저기에 땡글땡글 큰 눈으로 유쾌한 표정을 한 인형들과 아기자기한 소품, 햇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는 화분들, 이곳에서 그간 작업했던 작품들이 놓여있었다.

커다란 창으로 햇빛이 잘 드는 이 곳, ‘빛짜루화실’은 매주 수요일 오전만 되면 수강생들의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해진다. 수강생들은 서로 한 주 동안의 안부도 묻고, 커피를 마시며 하하 호호 유쾌한 대화를 나누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캔버스를 꺼내놓고 물통엔 물을 채우고, 붓과 물감도 착착 정리한 후 각자의 작업에 매진하기 시작했



다. 무엇을 그리나 가만 지켜보니 가족사진을 커다랗게 프린트해서 화폭으로 옮기고 있었다.

‘빛짜루화실’을 운영 중인 심재연 작가는 15명의 수강생과 함께 〈빛나는 가족 얼굴 그리기〉 동네방네아지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심재연 작가는 대학에서 서양화와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20대 때에는 직접 만든 인형과 공예 소품을 벼룩시장에 나가 판매하며 핸드메이드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2014년부터는 청년 문화상점 부평로터마켓에 부평구 1기 청년창업가로 선정되어서 핸드메이드 공예 공방을 운영해 왔다. 공예 공방을 창업해서 운영했지만 개인 작업을 하면서 그림도 꾸준히 그렸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 3년 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해 여러 지역문화센터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캐리커처, 팝아트, 수채화 등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다 작년에 부평 공예공방을 정리하고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던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빛나는 가족 얼굴 그리기〉 프로그램에는 간간 가르쳐왔던 여성문화센터 학생들, 화실 근처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낮 시간이 한가한 중년 여성들이다.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





했는데 입소문이 나서 15명으로 늘어난 데다 인원이 다 차서 참여할 수 없었던 대기자들이 다른 요일에 와서 배우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얼굴을 그리자는 것은 수강생들의 아이디어다. 먼저 맘에 드는 사진을 가져오면 선생님이 구도에 맞게 편집을 해서 프린트해주고 그것을 캔버스에 옮기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원래 그림에 소질이 있었지만 더 배우지 못한 아쉬움에 찾아온 사람도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그림을 그





리는 사람도 있다. 수강생들의 수준이 다양한 만큼 배경 작업부터 얼굴 묘사까지 개인에 맞춰서 지도를 해준다. 그러다 보니 수업시간 내내 선생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수강생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진도가 빠른 수강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들의 얼굴을 그리는 것에 재미를 붙였다. 준비된 재료 말고 작은 캔버스를 몇 개씩 더 주문해서 결혼해 출가한 자녀 집에 장식할 것,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 얼굴, 친구에게 보낼 그림도 그려서 선물하기 시작했다. 또 팝아트 캐리커처 그리기 말고도 풍경을 그리거나 식물과 꽃을 그리는 보테니컬 (botanical) 아트를 새롭게 배우기 시작한 수강생도 여럿 있다.

수강생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동네방네아지트 사업으로 그림그리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

다. 수강생들이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다. 중년인 그들은, 자녀도 다 키웠고 시집장가도 다 보냈기에 인생의 큰 숙제는 다 끝났으며, 이제는 자신이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에 무언가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도와주면서 작업을 하고, 가족들을 위한 마음의 표현을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이 경험이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실에 나오는 수강생들은 서로에게 소중한 이웃사촌이 되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연락하고, 간간히 모여 맛있는 밥도 먹는다고 한다. 이렇게 따뜻한 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심재연 작가의 헌신적인 역할 때문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심재연 작가는 수강생들을 이모처럼, 언니처럼 챙긴다. 힘들다고 툭툭대면서 미술 재료를 고르는 것을 어려워하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매번 일일이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묻고는 대신 구입해준다. 수강생들을 부르는 호칭은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언니’다. 이곳에 모인 수강생들의 마음이 편안해서일까. 붓끝에서 그려지는 가족들의 얼굴이 모두 환하다.



빛파루 화실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34번길 22, 2층

연락처 032-512-6636 / 010-3089-0300

블로그 <http://www.bjjaru.com/>

#동네방네아지트 #미술 #팝아트 #캐리커처 #빛파루화실

#부평화실 #오픈강좌



7 | 지금, 시대의 예술을 목격하자 현대문화공간 'S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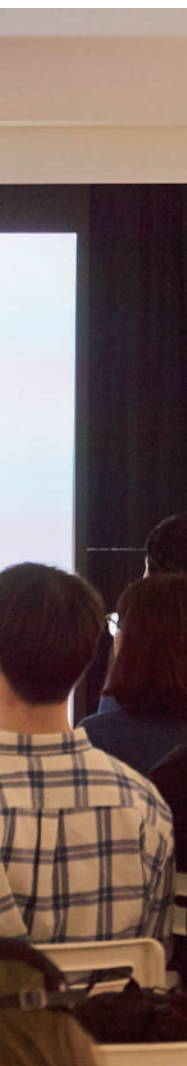
흰 나비를 잡으려 간 소년은 흰 나비로 날아와 앉고
신대철

죽은 사람이 살다 간 남향(南向)을 묻기 위해
사람들은 앞산에 모여 있습니다

바야흐로 융복합의 시대다. 각종 문화 예술 기관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 안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 교육과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도 얼마 전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 생겨났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공간은 복합문화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한 개인이 시도하는 예술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인 현대문화공간 ‘SAM’은 올해 5월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이다. 대표 디렉터 김시완 씨는 공간의 이름 ‘SAM’을 ‘Same Context’에서 따왔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관련한 자신의 기획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 공간 안에 펼쳐질 것이란 뜻에서다.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사진 동아리, 밴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며 행사의 기획과 홍보, 포스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진행하던 타고난 기획자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엔 대학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무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20대 초반부터 사진과 영상 업계에 뛰어들었다. 젊은 예술가가 성장하기 어려운 학벌주의와 도제식 교육이 여전히 만연한 예술계 안에서 김시완 디렉터는 장르와 위계가 만들어 놓은 경계에 상관없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 왔다.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을 즈음 더 많은 자극과 영감을 얻기 위해 훌쩍 유럽으로 떠났다. 그곳에서도 기회는 있었다. 임흥순 감독의 <위로공단>이 한국인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하던 해, 당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큐레이터의 소개를 통해 임흥순 감독의 스텝으로 함께 일하게 되면서 현대 미술계와도 인연을 맺었다.

이후 작가들과 일하면서 그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은 꿈이 생겼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대문화공간 ‘SAM’을 기획하게 되었다. 새로운 작업 공간은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튜디오 ‘워드(Studio Word)’와의 협업을 통해 ‘SAM’의 모든 가구들을 모듈 디자인했다. 모듈 디자인이란 한 시스템에 여러 개의 기능적 구성요소들을 조합함으





로써 완성하도록 한 설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가구와 공간의 배치가 프로젝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SAM’이라는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8채널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사운드와 전자동 암막 시설, UHD화질의 영상 시설을 마련하여 공연장, 상영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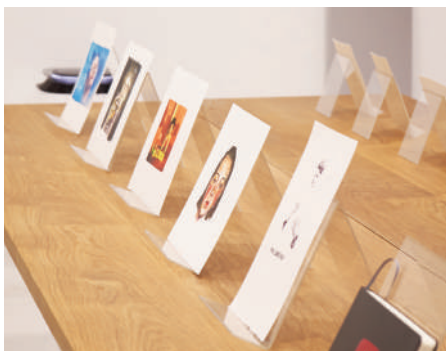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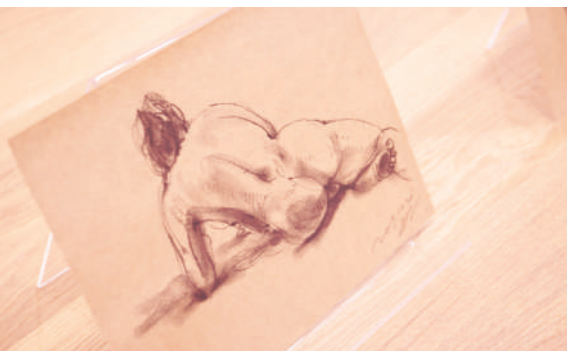
11월과 12월에는 동네방네아지트 지원 사업을 통해 3번의 강연을 기획했다. 첫 번째로 약 3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연 작가가 ‘생활 예술인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오프라인 강연을 열었다. 이연 작가는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유튜브를 통해 섬세하면서도 감각적인 드로잉을 선보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어 그릴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이 담긴 강의를 하고 있다. 이 강연에는 약 40명의 참가자가 함께했으며, 이연 작가의 작업 과정을 들여다보고 평범한 일상 안에서도 예술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2월 1일에는 시집 『구관조 씻기기』와 『희지의 세계』의 필자이자 김영 문학상을 수상한 황인찬 시인의 강연 ‘시인이 언어를 획득하는 일’

이 열린다. 이 강연에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시가 발휘하는 힘과 역할, 그리고 시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언어를 획득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연 후에는 황인찬 시인의 세 번째 시집 『사랑을 위한 도풀이』 낭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밴드 ‘잔나비’의 앨범 ‘아트워크’로 이름을 알린 ‘콰야’의 강연 ‘보통의 일상이 작품이 되기까지’가 진행된다. ‘콰야’ 작가의 일상이 작품이 되기까지의 작업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각 사람의 일상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김시완 디렉터는 기획에 그치지 않고 ‘SAM’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와 강연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한 사람이 기획부터 진행, 마지막 영상으로 마무리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해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완성도가 느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은 공연과 강연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과 작가들이다. 김시완 디렉터는 결과물이 나오기에 앞서 방향성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첫 번째로 기획한 행사를 마치고 나니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





했다. 앞으로도 ‘SAM’을 찾아온 사람들의 피드백과 아티스트들의 인정을 방향키 삼아 계속해서 정진하겠다는 의지도 아울러 밝혔다.

‘SAM’이 가진 또 하나의 방향성은 다양한 예술 장르를 다루면서 주류와 비주류 같은 경계를 허물어 보겠다는 것이다. 아니, 예술에만 한정되지도 않는다. 김시완 디렉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는 ‘SAM’의 기획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와 대화하며 나눈 다양한 계획 중에는 우주 과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Space X’사의 로켓 발사 과정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보는 것도 포함 되어 있었다. 김시완 디렉터는 “앞으로도 ‘SAM’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이야기를 보다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조명하며 독립 아티스트들과 상생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원형 그대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동네방네
아지트

현대문화공간 ‘SAM’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68, 4층

홈페이지 same-context.com

#동네방네아지트 #현대문화공간SAM #복합문화공간 #공연전시



8 | 이곳의 나무에는 우리의 꿈이 주렁주렁! 꿈나무도서관



우리가 사는 인천에는 과연 몇 개의 도서관이 있을까? 시, 구립 도서관과 같은 지역 거점 도서관 외에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만 해도 인천 관내에 300여 개, 남동구 안에 20여 개가 있다. 그 많은 작은 도서관 중에서 우수 작은 도서관으로 선정되고, 올해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꿈나무도서관을 찾았다. 아직 도서관 문이 열리기 전이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며 맞이해주신 분이 바로 김광원 관장님이였다.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더니 무척 쑥스러워하시기에 그냥 도서관 이야기나 들려 달라 청하며 책들로 둘러싸인 아늑한 자리에 앉았다.

꿈나무도서관은 만수동에 위치한 베엘감리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공간을 내주었고, 이전에 도서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광원 관장에게 운영을 맡겨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공간만 지원을 받았을 뿐 도서관 살림은 온전히 자력으로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광원 원장은 일단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꾸리는 데 집중했다. 이곳에서는 여느 도서관처럼 정숙



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 어린아이들과 찾아온 엄마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재잘재잘 이야기책도 읽어 주고 간식도 먹으며 머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했다. 또한 도서관 스텝들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찾아오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도서관을 찾은 것인지 친절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동네에서 사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자주 보는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혀두었다가 도서관을 찾을 때마다 반겨주었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쌓이면서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다. 점차 더 많은 주민을 만나다 보니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게 되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아이가 있고, 피아노를 가르쳐줄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을 학생과 선생님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었다. 여러 분야의 선생님을 찾다 보니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엄마에게 눈이 갔다. 엄마들은 대학에서 배우고 일한 경력도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를 거치며 흔히 말하는 경단녀(경력단절 여성)가 되어있었다. 그 재능들이 너무 가까워서 김광원 관장은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엄마들에게 강좌를 맡겼다. 수강생이 1명뿐이더라도 일단 시작하라며 맡겼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엄마들도 일단 학생을 맡아 시작하고 나면 자신의 아이를 맡은 듯 열심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모습들이 김광원 관장에게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뿌듯한 순간 중의 하나였다.





그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 역시 나눠서 맡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재는 도서관리, 회원관리, 회계와 감사, 도서관 운영 지원 등 모든 분야가 지역 주민과 이용자 자녀들의 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 문제 역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액의 정기후원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성인과 청소년이 각각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위원이라는 직책도 만들었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자원 봉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분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꿈나무도서관은 지역에서 배움과 성장의 플랫폼이 되어준다. 공간을 제공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되, 수업의 운영이나 방식은 자율에 맡긴다. 꿈나무도서관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동네방네아지트 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문인화 수업’ 역시 그 중의 하나이다. 문인화 수업의 경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만약 마을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운영회의를 통해 그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강좌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있지만 꿈나무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중심은 바로 책이다. 도서관의 소장 도서 규모는 800권 정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새로운 도서가 순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초과분의 책은 벼룩시장을 열어 마을 주민에게 중고도서로 아주 싼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더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광원 관장은 환갑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인천대에서 문헌정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개관 10년을 맞이하면서 꿈나무도서관은 이러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더 크게 품어주고 싶은 목표가 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구성원 모두가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 안에 이러한 열정과 애정이 더 나누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꿈나무도서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37번길 29

연락처 032-471-6355

#동네방네 아지트 #만수동 #문인화교실 #꿈나무도서관 #작은도서관



9 | 소통과 나눔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곳 꿈다락도서관



예전에 우리는 도서관이 책 빌려보고 공부하는 곳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요즘 도서관은 변화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도서 열람이나 대출 기능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마을마다 곳곳에 들어선 ‘작은 도서관’들은 동네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 중심에서 벗어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수시로 찾는 문화센터가 되었다. 어느 ‘작은 도서관’을 가보아도 이제는 시장에 들렀다가 잠시 찾는 주부들, 손자 손을 잡고 찾아온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북적인다.

남동구 구월동의 복개천 변에 자리 잡은 꿈다락도서관도 그런 곳이다. 벌써 11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근처에 사는 남녀노소가 다 즐겨 찾는 도서관이 되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정숙하게 책을 읽고 있으리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어긋났다.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 함께 노래하는



소리, 땀 터지는 웃음소리가 실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여 문에 난 작은 창으로 안을 엿보았더니,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손뼉 치며 율동과 노래를 하고 계셨다. 그 앞에는 다섯 분의 자원봉사자들이 기타와 우쿨렐레를 연주하면서 어르신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방해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걸 피할 수는 없었다. 분위기를 망가뜨린 것 같아 그분들에게 웃는 낯으로 용서를 빌려고 했는데, 아, 모두들 표정이 밝아도 너무 밝았다. 하나 같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다. 낯선 이의 갑작스런 방문을 전혀 꺼리지 않는 무한 포용의 태도였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열린 자세로 만들었을까?

열심히 율동하고 계신 유옥희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다. 활동에 대한 소감을 묻자, 4년째 도서관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데, 활기차고 기분 좋은 활동을 하고 나니 건강도 저절로 좋아졌다고 자랑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자 송은선 님 옆에 앉았다. 자기들은 우쿨렐레 동호회 ‘우쿨루야’ 회원들이라며 늘 이런 봉사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특히 꿈다락도서관이 동호회 활동과 봉사활동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칭찬이 자랐다.

벽에는 빙 둘러 서가가 놓였고 수많은 책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 방은 유아 도서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뭣이든 어떠랴? 어르신들이 노래와 춤을 추고 나면, 다음에는 아이들이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그림책을 탐독할 것이다. 도서관은 마치 어느 여염집 거실처럼 할머니와 손자, 시

아버지와 며느리가 만나고 모든 것을 나누는 공간인 것이다.

꿈다락도서관을 일구어낸 김신원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처음 도서관을 꾸릴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공간 마련도 무척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무관심이 가장 서러웠다고 한다. 모두 생업에 바쁘는데 도서관은 무슨 도서관이냐며 힐난했던 것이다. 그러다 교회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구청에서는 시설 리모델링까지 해 주었으며, 인천문화재단에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그동안의 노고를 다 잊었다며 활짝 웃었다.

처음에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싶어 도서관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새로이 깨닫게 되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화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느낀 것이다. 동네의 작은 도서관 ‘꿈다락’은 독서문화 공간에서 지역사회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나아가 이제는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사회봉사 공간으로 점점 진화하는 중이다.





김신원 대표는 52세의 나이에도 청춘의 열정을 지녔다. 잠깐 만나보았을 뿐이지만 활력이 넘치고 삶을 긍정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람이 좋아, 사람들을 모으고 만나서 함께 즐긴다고 했다.

그러자니 할 일도 많다. 도서관 본연의 업무인 독서문화 창달에도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벌써 9년째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운영하고, ‘소담소담’이라는 독서클럽도 진행하고 있다. 우쿨렐레 동아리, 탁구 동아리, 아빠 독서 동아리, 수화 동아리 등 각종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청소년 대상 멘토링 진행, 평생교육 사업, 봉사활동, 지역 바자 행사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주민들과 함께 꾸려나가고 있다. 도서관 로비에는 그동안의 활동 자취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다. 한 바퀴 둘러보니 얼마나 많은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각종 상장과 표창장을 비롯하여 그림, 포스터, 사진 자료, 문집 류, 워크숍 안내서, 유아들이 만든 듯한 색종이 접기 작품들까지 그

하나하나에는 이곳 주민들의 삶의 향기가 배어있었다.

여러분은 인천의 모래내시장을 아는가? 꿈다락도서관은 이 유명한 시장을 옆에 끼고 있다. 1980년대에 조성된 모래내시장은 30년 동안 주변의 여느 재래시장과 다를 바 없이 낙후된 곳이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상인들이 뿔뿔 뿜쳐 시장을 성공적으로 현대화하였다. 전통 시장의 정서는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쾌적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현재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리고 보니 시장이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가 꿈다락도서관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그렇다. 변화의 원동력은 주민이든 상인이든 이 지역 사람들이 꿈다락도서관이 추구하는 가치, 즉 소통과 나눔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 분명하다. 도서관을 나와 모래내시장을 둘러보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어물전에서 임연수어 두 마리를 샀다. 젊고 활기찬 여주인을 보면서 ‘이분도 혹시 꿈다락도서관에 다니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하며 혼자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삶의 향기’를 맡고 싶다면, 꿈다락도서관을 한번 찾아보라.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모래내시장도 한번 둘러보라. 그러면 ‘삶의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피어오르는가를 분명하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동네방네
아지트

꿈다락도서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서로 89번길 9

연락처 070-7560-5304

#동네방네아지트 #꿈다락도서관 #작은도서관

#모래내시장도서관 #꿈다락



10 | '꼼지락꼼지락' 바느질모임 '콩세알도서관'



아직 아랫목의 따뜻함이 살아있었던 시절에는 어느 동네나 사랑방 또는 아지트로 불리는 곳이 한두 군데쯤 있기 마련이었다. 대개는 비좁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언제나 드르르 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사람들과는 무엇을 함께 해도 마냥 즐거웠다. 이제는 그 시절로부터 모든 점에서 멀어졌지만 그 온기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 분명 나 혼자만은 아닌가 보다.

남동구 만수동(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59번길 21 2층)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콩세알도서관’은 주민의 온기를 지켜주는 아지트 역할을 올해로 12년 째 해오고 있다. 이곳은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무려 1만 1400여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도서목록 중에는 공립도서관에서도 찾기 힘든 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곳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콩세알도서관’을 작고 소박하지



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든 원동력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답게 독서 동아리는 기본이고 중국어와 영어를 배우는 어학 동아리,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취미 동아리 등 마음이 맞는 이웃끼리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며 문화생활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바느질 모임인 ‘꼼지락꼼지락’은 단연 최고의 인기 강좌라고 한다.

“인천문화재단에서 ‘동네방네아지트’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격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점숙 사무국장은 가뭄의 단비처럼 찾아온 인천문화재단의 후원 덕분에 프랑스 자수 전문 강사를 모실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 동아리가 더 탄탄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사실 바느질 모임 ‘꼼지락꼼지락’은 3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며 가느다란 명맥을 이어오는 중이었





다. 그 몇 번의 위기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각 기관에서 받는 적은 규모의 지원금과 회원들의 회비 1만 원으로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온전히 사람 덕분인 것 같아요.” 도서관을 10년 넘게 이용해 오고 있으며 ‘꿈지락꿈지락’에서 반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미숙 씨는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 모임을 통해 경험했다고 한다. 그녀는 수강생들과 바느질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면서 차츰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 공감하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이 모임이 자신에게 큰 활력소가 됐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또 다른 수강생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해서 파우치를 만들고 자수브로치나 가방을 완성해 냈을 때 성취감도 물론 느끼지만 이 모임에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절로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서 좋다는 말도 전했다.

어떤 공간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치의 선함과 평균치의 악함을 함께 갖고 있지만 어떤 공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조금 더 발휘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닐까? ‘콩세알도서관’에서 바느질 모임 ‘꼼지락꼼지락’의 회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마음이 조금 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 유달리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함께’ 하는 일의 소중함을 깨달은 이들이기에 이곳을 찾는 누구에게나 기꺼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누구나 세상의 칼바람에 마음을 베일 때가 있을 것이다. 세상이 유독 나에게만 야박하게 구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공세알도서관’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 당신이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양하게 준비해 놓은 열여덟 개의 동아리와 아동도서부터 인문학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도서목록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 줄 다정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공세알도서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59번길 21 2층

연락처 070-8847-2348 / 032-464-2348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ong3library>



미추홀구, 연수구 동네방네 아지트



11 |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라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부! 도시와 농부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낱말이 합쳐져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현대인은 대부분 도시에서 산다. 잿빛 콘크리트와 건조한 직선 속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온종일 흠 한 자락 밟아보기가 쉽지 않다. 모두 잊고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흙과 푸른 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희뿌연 도시의 공기와 소음 속에서 생명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다. 그제에서야 잊고 있던 들과 밭의 흙을 찾으려 애쓴다. 중국 동진의 시인 도연명은 ‘귀거래사’에서 전원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영국의 시인 예이츠도 ‘이니스프리의 호수’로 가서, 아홉 이랑 콩밭 일구어, 꿀벌 치면서 살자’고 부르짖었다. 우리는 도시의 삶 속에서 지쳐 쓰러지기 전에 생명의 흙을 다시 찾고 싶은 것이다. 송학산 자락의 푸름 속에 평화롭게 자리 잡은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탄생하였다.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중앙정부와 인천시, 미추홀구 등의 지원으로 올 5월에 개관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다.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센터로는 전국 최초이다. 이런 센터를 세운 사실은 시대를 앞서간 탁월한 선택이고 올바른 결정으로서,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전국적으로 높이 자랑할 만한 일이다.

센터는 의외로 상당한 규모였다. 2층 규모의 단독건물인데, 1층에는 사무실, 지원실, 다목적실, 휴게실, 2층에는 강의실과 체험실이 있었고,

옥상에는 체험용 텃밭이 있었다. 그리고 건물 옆에 너른 농사 실습 및 체험장 또한 갖추고 있었다.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자 답변에 나선 성현영 운영요원이 자세하게 설명했다. 듣고 보니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다. 대충만 요약해 보아도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체험과 실습프로그램 운영,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컨설팅, 정보 제공, 교류협력사업 등 다양했다. 정기프로그램인 ‘도시농부학교’에서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텃밭 보급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건물 주변과 1층 로비를 둘러보니 최근 인천문화재단에서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토종, 사진으로 그림으로 책으로’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우리 먹거리가 되는 토종 씨앗을 사랑하고 이어가려 노력하는 활동이란단. 이 활동을 위해 먼저 뜻을 같이하는 도시농부들의 모임 ‘씨앗이음’을 만들었다. 평범한 40~50대 직장인,





가정주부들이 모여 공부를 많이 했다. 토종 씨앗을 확보하려고 전국을 누비고 네트워크도 형성했다. 그래서 모은 토종 씨앗들.

그리고 보니 그간에 확보한 토종 씨앗들이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청팔, 검정호박, 어금니동부, 호랑이콩, 풍선초 등등 이름조차 생소한 씨앗들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바로 우리네 땅에서 오래전부터 심고 키웠던 종자들이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배고 죽는다!” 씨앗이음 회원들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옛것을 지키려는 노력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생각이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벽에 예쁜 문구들이 나란히 게시되어 있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 도시의
미래를 일구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잇는 공동체를 만들자’
‘도시를 생명이 자라는 녹색의 공간으로 바꾸자’

도시
농부

회색의 콘크리트와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생명이 자라는 녹색의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

도시
농부

버려지는 유기자원을 이용한 자원순환 퇴비만들기,
빗물의 이용, 화학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한다

그렇다. 도시농업은 단순히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농사짓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농업이 갖는 다양한 가치, 즉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 조절, 대기 정화, 토양 보전 등의 환경적 가치와 공동체 문화 형성, 정서함양, 여가 지원 등의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해 내는 일이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터를 지속 가능한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건물을 벗어나 옆 언덕 위 농사 체험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솔길을 따라 여기저기에 텃밭들이 가꾸어져 있었다. 그냥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농사짓고 작물을 가꾸는 실천의 현장이었다. 언덕 종턱에 올라서니 저 멀리 도시는 빌딩 숲으로 가득 차있었다. 바로 앞 가까운 곳에는 줄지어 선 아파트들도 보였다. 도시농부들은 저 회색빛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텃밭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리라.

아까 센터의 팸플릿에서 본 문구가 떠올랐다.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라!’

호미만 있으면 도시농부들은 도시 어느 구석진 곳에서도 경작할 수 있다. 경작은 갈아엎어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회색 도시를 생태 도시로, 삭막한 사회를 공동체 사회로 경작하는 것이다.

농부는 시인이다. 어느 시인이 말했듯, 호미자루 하나로 시를 쓴다. 이른 봄날부터 늦가을까지 일 년에 단 한 편의 시를 쓰는 것이다.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농부들이 만나 생각을 나누는 곳, 땀을 흘려 푸름을 만들어가는 곳, 호미자루 하나로 시를 쓰는 곳이었다.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학길 104번길 40-3

연락처 070-4352-7191

#동네방네아지트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 #도시농업활성화



12 |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스페이스더하기



공연이면 공연, 독서모임이면 독서모임, 그 밖에도 세미나, 파티, 원데이 클래스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모두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그리고 이곳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난다면? ‘스페이스더하기’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해 홍성현 씨가 새롭게 문을 연 공간이다. 서울에서 축제기획자로 일하다가 향인 인천에서 자신만의 공간과 기획을 위해 ‘인인유유(人人有有)’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유의미한 무언가가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믿음이 회사명이 되었다.

창업 후 지난 5월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페이스더하기’를 오픈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스페이스더하기’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 역과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찾기 쉬울 뿐 아니라, 채광이 좋은 널찍한 공간 안에 사람들이 다



양한 활동을 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소품들과 시설을 마련해 놓았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며 새롭게 시작된 복합문화 공간 ‘스페이스더하기’에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공간 대관도 하고 자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아지트 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독서동아리 모임이다. 독서동아리 ‘지비’ (지속적인 비체들*)는 작년 ‘인천여성민우회’에서 주관한 지역 페미니즘 특강을 통해 만난 동네 페미니스트들이 책을 통해 좀 더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자 시작한 독서 모임이다. 매번 모임 때마다 장소가 없어 옮겨 다니는 불편함을 겪고 있던 차에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모임에서 만난 홍성현 대표가 흔쾌히 장소를 내어주었다.

지비 모임은 녹색당, 여성 단체, NGO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부터 다큐멘터리 감독, 일러스트 작가 등의 예술인들, 그리고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매달 세 번째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월별 주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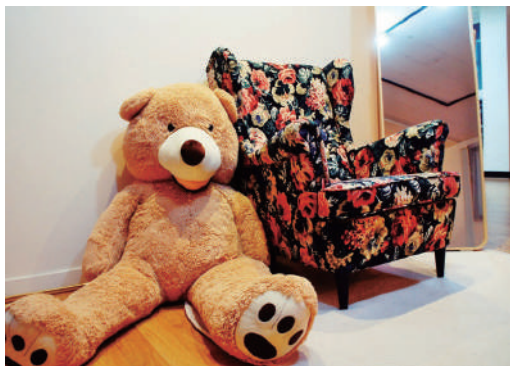
선정하고 그에 맞는 책을 읽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정한 주제와 책들은 고전과 최신 이슈를 반영해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먼저 여성의 재생산권 및 건강을 주제로 한 『배틀그라운드』, 『질의응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와 성폭력을 주제로 한 『여자는 인질이다』, 페미니즘 고전인 『젠더트러블』, 『성의 변증법』, 『씨스터 아웃사이드』 등이다.

참가자들은 지비 모임에 참여하면서 책읽기라는 행위를 새롭게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진정한 책읽기란 작가의 문제 제기와 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독자)의 이해와 만나서 정서적 시너지를 일으킬 때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임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책읽기를 통해 변화된 점도 생겼다. 처음엔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책모임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천 내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즘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모두들 여성단체에 후원도 하고, 활동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공부모임의 성격을 갖고 모임을 추진해보고 있는데, 많이 배우는 만큼 부담도 커서, 내년에는 뭔가 변화를 줘 볼 생각이다. 지비모임이 열린(개방적) 모임이라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모두들 반가워하는 만큼 약간 긴장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성실한 독서와 발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극을 통해 서로가 느끼고 성장해야 이 모임이 유지되고 생동감이 있을 것이라



비체(object)는 주체도 객체도 될 수 없는 존재, 아예 존재 자체가 지워진 존재다. 포스트구조주의에서 주로 탐구하는 용어로서, 관습적인 정체성 및 문화적 관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지만 간혹 이 때문에 책을 읽지 않으면 참석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고 한다. 책을 읽은 사람도 발제한 사람도 혹은 이것 듣기만 하는 사람도 모두 즐거운 책모임이 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도 함께할 생각이다. 동아리는 일단 즐거워야 하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뭔가 해방감을 느끼고 서로 힘을 주고받길 바란다. 연말에 책모임을 마무리하며 2019년 한권의 책, 한줄 문장 같은 발표회를 가지는 것도 고민 중이니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다면 주저 없이 참여해보길 권한다.



스페이스더하기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15, 3층

연락처 010-2241-3796

블로그 https://blog.naver.com/space_deohagi

SNS https://www.instagram.com/space_deohagi/

#동네방네아지트 #스페이스더하기 #간석동 #파티룸

#모임장소 #독서모임 #페미니즘



13 | 흑백사진 속에 동네 역사를 담는다 카메라사진관



제운4거리를 아는가? 인천의 웬만한 4거리 이름을 아는 이들에게도 이 4거리는 좀 생소할 것이다. 용일4거리에서 학익4거리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4거리의 이름이다. 이 4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인하대 후문으로 이어진다. 이곳에서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젊은이들로 넘치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운4거리는 몇 해 전까지 우리에게 전혀 딴 모습으로 각인 되어 있었다. 낮에는 황량하고 밤에는 음침한 거리, 불법유흥업소들이 붉은 조명 아래 변종 성매매 영업을 하던 곳이었다. 인하대학교를 방문하려면 지나가게 되는 거리였는데, 그때마다 늘 불만스러웠다. 어떻게 대학교 근처에 이런 음침한 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곳이 지금 새로 태어나고 있다. 미추홀구는 이곳을 ‘청년창업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가 철거된 자리에 구에서 지정한 청년창업 공간들이 속속 자리를 잡



고 거리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거리의 모습은 분명 변화하고 있다.

‘카메라사진관’은 바로 미추홀 청년창업 제2호점이다. 제운4거리 모퉁이에서 황량한 벌판에 한 포기 들꽃처럼 들어앉아 있다. 주변은 아직 낙후된 구도심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그 속에서 ‘카메라사진관’은 홀로 문화공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런데 사진관이라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사진관 운영이 잘 되느냐는 질문부터 하자, 주인장 최열 씨는 올해 4월에 입주하여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점점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너털웃음을 웃으며 말했다. 그는 사진관 운영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프리랜서사진작가로, 사진예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열 씨는 손을 내저으며 상업공간으로서 사진관을 기대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람들과 사진이라는 예술을 통해 교류하고 공감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마련한 공간이라고 했다. 사진관 안의 공간은 예상보





다 너무 소박했다. 사진 촬영을 위한 공간 외에 달랑 책상 하나 놓고, 수납장과 탁자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필름카메라들, 흑백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꾸미려고 하지 않고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내보이려 하는 주인장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처음 이 거리로 들어왔을 때, 개발에 밀려 점점 사라져가는 옛 동네 풍경에 관심이 갔다고 한다. 아주 다 사라지기 전에 그 풍경들을 사진 기록으로 남기고 그 속에 추억을 담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흑백으로 보는 우리 동네’ 사업을 기획하고 사람들을 모았다.

그는 또 사람들에게 옛 필름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했다. 흑백 필름을 사용하라고도 했다. 그는 유난히 사라져가는 것들에 애착이 깊었던 것



같다. 흑백의 사진은 그 속에 이미 세월이 담겨 있다. 하나도 가리지 않고 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오늘날의 컬러 사진, 디지털 사진은 그 안에 세월을, 세월의 이야기를 담을 수 없다. 흑백의 사진은 다 드러내지 않고 속에 감추어진 부분이 남아 있어 우리에게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이야기를 하게끔 만든다.

이 동네를 잘 아는 해설사도 초청해서 골목골목 누비면서 장소에 얽힌 일화를 들었다. 회원들은 이곳에 사는 주민 외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있어서 이야기는 동네를 떠나 인천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되었고,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추억들을 곱씹는 기회가 되었다. 대부분 사오십 대(代)의 회원들은 특히 옛 필름카메라를 사용해 보면서 옛 추억에 빠졌다. 신속함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디지털 문화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느린 삶을 경험한 것이 뜻깊었다고 했다.

결국 ‘흑백으로 보는 우리 동네’ 프로그램은 다만 사진을 찍는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고, 함께 살아온 삶의 터전, 동네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되돌아보는 활동이었다. 물론 사진에 관한 모든



기술도 전수하였다고 한다. 촬영에서부터 현상과 인화까지. 다만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할 암실 공간 부족으로 몇몇 과정을 실행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최열 씨는 아쉬워했다.

‘카메라사진관’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활동한 공간이다. 지역 주민들도 있었고, 사진 애호가들도 있었으며 단순히 프로그램에 관심 있어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목적에서 참여하였든 그들이 모두 모여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경험을 공유했다는 점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공감대가 넓어지면 그만큼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 모임이 더욱 확장되어 지역사회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카메라사진관’의 문을 나섰다.

동네방네
아지트

카메라사진관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72

연락처 032-872-5628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meraxphoto>

#동네방네아지트 #카메라사진관 #흑백사진관 #흑백필름

#미추홀구사진관



14 | 호모 파베르의 후예들이 모였다 (주)로보메카 메이커스페이스



인류를 지칭하는 학명에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 슬기로운 인간) 외에 별칭으로 호모 폴리틱우스(Homo politicus 사회적 인간), 호모 로켄스(Homo loquens 언어적 인간),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유희하는 인간)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또 있으니 바로 호모 파베르(Homo faber 도구의 인간)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것을 만드는 데에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돌조각을 깨트려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인간은 오늘날 컴퓨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든다. 숙명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인간이다.

이건 (주)로보메카의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공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떠오른 생각이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라니 이름부터가 ‘만드는 자의 공간’이 아닌가. 호모 파베르의 유전자 수만 년을 지나 오면서도 건재하고 있다는 걸 이곳은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 (주)로보메카의 메이커스페이스는 호모 파베르의 영광을 재현하는 공간이었다.



‘(주)로보메카 701호’ 라고 쓰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곳은 아주 다른 문화의 공간이구나 하는 탄성이 나왔다. 어떤 장식도 어떤 미화도 없이, 실용적이고 단순하지만 한 공간의 분위기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 흔한 그림 액자 하나 걸려있지 않았다. 대신에 공간은 대부분 어떤 작업을 위한 자재와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이공대 연구실에 들어섰을 때 받은 느낌 그대로였다.

인문학도나 예술가들은 빙 둘러 이야기하거나 그럴 듯하게 꾸미면서 먹고 살지만, 과학 기술인들은 명쾌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필요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는 공간은 단순한 직선이 넘치고 무채색의 배경이 상례(常例)다. 이곳 ‘메이커스페이스’는 바로 그 과학 기술인들이 사는 공간임을 한눈에 드러내고 있었다.

주인장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였다. 공간의 반은 엄청난 양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디에 쓰이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천장 높이의 수납함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선반이나 탁자 위 등 빈 곳이면 여김없이 온갖 기자재와 기계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 사이를 헤치고, 책상머리에서 물건들에 파묻혀 있는 이곳의 주인장 김명국 씨를 만났다. 그의 사무실은 인터뷰할 만한 장소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겨우 의자를 놓을 만한 공간을 확보하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만들기에 미친 사람임에 틀림없다. 벌써 12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은 다름 아닌 만들기 교육 사업이다. 교육 대상은 동호인들, 초등학생들, 주부들, 가족 단위 등 다양하다. 각급 학교로 출장을 나가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돕기도 한다.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아 공지(公知)가 나가고 이틀 후면 접수가 마감된다고 한다. 교육의 질 관리 때문에 수강생을 10명으로 한정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멀리 안산시에서도 달려오는 수강생이 있다고 하니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그는 인천시 연구구가 지정하는 4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탁자 위에 귀엽게 생긴 물건 하나가 놓여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네모난 하얀 틀에 동그랗고 새카만 두 개의 눈이 달려 있다. 동그란 쌍안경 같기도 하고 카메라 같기도 한 이것이 무어냐고 물었다. 얼마 전에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중에 수강생들이 만든 거라고 했다. 이게 스피커라고? 그것도 블루투스? “그럼 이거 폰과 연결하면 실제로 소리 나와요?” 김명국 씨는 의심에 찬 질문자를 한번 쳐다보더니, “당연하죠.”하고 짧게 말했다. 아무려면, 장난감 모형으로 이런 걸 만들겠다는 눈치다. 그러나 과학 기술 방면에 전문가가 보기에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 반나절 뚝딱거려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든다니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근에 진행한 대표적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3D 펜 메이킹, 3D 가족 액자 만들기 등이 있었다. 그의 집요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에 대해 대충만 듣고 있어도 어디 미래 세계를 탐방하는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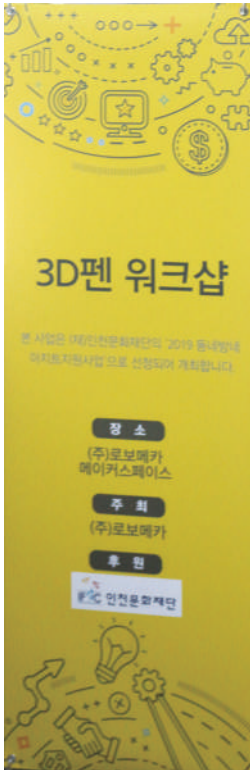
‘새처럼 날갯짓하며 날아다니는 버드킷(birdkit)’

‘벌레처럼 진동하며 돌아다니는 로봇’

‘4연발로 고무줄을 날리는 총’

‘뇌파로 움직이는 모형자동차’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지식은 기계, 금속, 전자, 통신, 디지털 분야를 총망라한다. 지식뿐만 아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김명국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진지한 열정이 잔뜩 배어있다.



그가 겸손한 어투로 말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지루함을 참고 그것을 만들어나가다 보면 이득고 꿈을 실현하는 기쁨을 맛본다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평생 놓지 못할 거라고…….

마침 옆 강의실에서는 3D 펜 워크숍이 열리고 있었다. 초등학교생들이 강사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3D 펜으로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어린 학생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다. 3D 펜과 같은, 시대를 앞선 도구를 다루어봄으로써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만들기에 빠져 누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이 신기한 과학 기술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될 것이다. 이런 교육을 위해 출연하는 강사진도 4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강사 풀을 형성하기 위해 강사 양성 교육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

(주)로보메카 ‘메이커스페이스’는 찾아가기도 쉽다. 수인선 연수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에 보이는 승영빌딩의 7층에 있다. 스스로 호모 파베르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쯤 이곳을 방문하여 재미있는 과학 기술의 세계를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는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주)로보메카 메이커스페이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민로 50번길 93 승영빌딩 701호

연락처 032-811-7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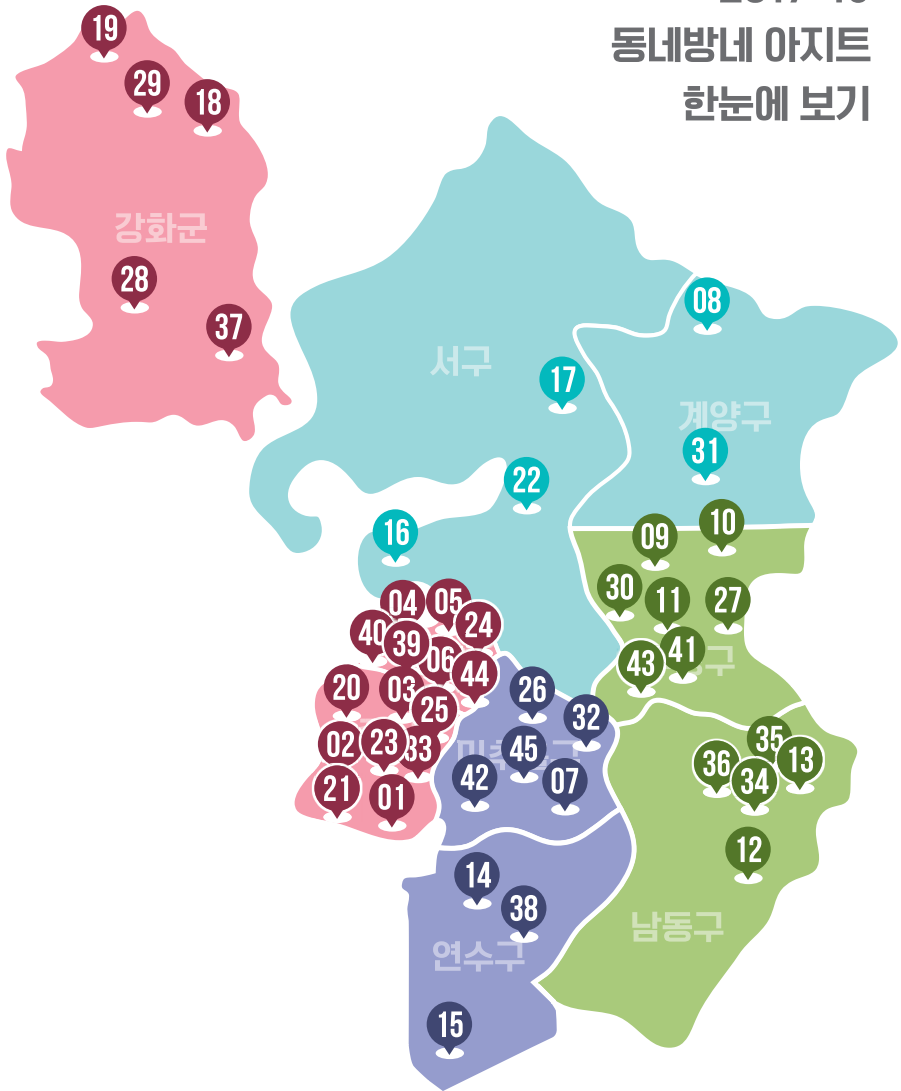
홈페이지 robomecha.co.kr

#동네방네아지트 #로보메카메이커스페이스 #3D펜워크샵

#만들기



2017-19 동네방네 아지트 한눈에 보기



2017-19 동네방네 아지트 목록

No.	아지트명	주소
1	카페 까미노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66번길 14-1
2	임시공간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29
3	서담재 갤러리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로 25-15
4	아벨 시 다락방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5-1
5	허공산실(한미서점)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9
6	카페 제이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7-151
7	플라워 인 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40번길 14
8	문화공간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5-27 뉴서울프라자
9	카페 하루(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50-5
10	부평공예마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17 3층
11	인천평화LETS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04번길 10 지하
12	플레이스 이너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월남로 312
13	향촌작은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5
14	세종문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말로 8번길 13-2
15	송도 요가쿨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9 서운프라자 5층
16	나래미 생태공방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 65번길 39-1
17	문화카페 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10 청라리치아노 306호
18	버드카페	인천광역시 강화군 신문길 44번길 5, 1층
19	카페 하루(강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93-19
20	버텀라인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3번길 23
21	제이스튜디오키친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3-1 진성빌딩 1-2호
22	청소년인문학 도서관 느루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8-4번지 302호
23	다인아트갤러리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3
24	작당	인천광역시 동구 안송로 4

2017-19 동네방네 아지트 목록

No.	아지트명	주소
25	반반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15번길 68
26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연합 놀이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3, 주안시민지하상가 27번 출구 아트애비뉴27
27	삼산해오름공부방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29-14
28	책방, 국자와주걱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428번길 46-27
29	김유자 인문서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장정양오길 227-4
30	리폼맘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67 명성빌딩 3층
31	돌멩이국도서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시장로 23 지하1층
32	스페이스 더하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15, 3층
33	Acting 연습실 'Y' -극단 열정-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60-1 3층
34	꿈다락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서로 89번길 9
35	꿈나무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37번길 29
36	콩세알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59번길 21 2층
37	온(ON)수리카페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길 17
38	(주)로보메카 메이커스페이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50번길 93 승영빌딩 701호
39	책방 모도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47번길 14
40	산책 작은 도서관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50-1 지하 1층
41	빛짜루 화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34번길 22, 2층
42	미추홀구도시농업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학길 104번길 40-3
43	현대문화공간 'SAM'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68, 4층
44	커뮤니티주점 개코막걸리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10-2
45	카메라사진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72

동네방네 아지트 탐방 3

- 인천의 문화 아지트를 찾아 떠나는 여행

발행	2019년 12월
발행처	인천문화재단(032-455-7100, www.ifac.or.kr)
기획	윤지원(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취재·글·사진	김진영, 안해숙, 한승희 김진영(산책작은도서관, 책방모도, 커뮤니티주점 개코막걸리, 콩세알도서관) 안해숙(꿈나무도서관, 빛짜루화실, 스페이스더하기, 현대문화공간 'SAM', Acting 연습실 'Y' -극단 열정) 한승희(꿈다락도서관, ㈜로보메카 메이커스페이스, 미추홀구도시농업지원센터, 온(ON)수리카페, 카메라사진관)
편집디자인	다인아트

비매품

